

일 주 문

소외계층 김치 700포기 전달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12월 12일 서대문구 지역 내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등 130세대에게 김치 700포기를 전달했다.

제9회 동지 팔죽 나눔행사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12월 19일 의왕·성남 지역에서 총 1600명에게 팔죽 나눔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강연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12월 18일 광주 한국마사회 광주지부 9층에서 '화! 어찌할까?' 를 주제로 강연했다.

불교신문 신임사장에 영배스님 임명

불교신문 제45대 사장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신문 신임 사장 영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하 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영배 스님은 1966년 사미계, 1971년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제11, 12, 13, 14,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방송 상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울산 흥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신임 회장에 법정 스님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신임 회장에 법정(法政)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2월 1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차기 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에는 전(前) 전국비구니회장 법선스님과 이천 회계사 주지 법정스님이 후보로 나와 법정스님이 42표, 법선스님이 39표를 얻어 법정스님이 당선됐다(총 81명 투표).
선거가 끝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해일 스님은 법정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법정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먼저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전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본받아 모든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보현행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회계사에 전국비구니회관을 건립하는 등 종단과 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전국비구니회장 법정 스님은 백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99년 백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03년 해초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장원 대학교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국비구니회 문화국장 겸사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법배부부 이수자이다.

“인권한국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

4대총단 이주·인권 협의회 공동위원장 회일 스님

이주민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불교, 가톨릭,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총단이 기독교회관에 모여 '이주·인권 협의회'를 발족했다. 170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기에는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제동장 차마련을 위해 종교계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회일 스님(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공동대표·사진)은 "세계 인권선언에는 태어날때부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도 노예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었지만 유독 한국 이주노동자에게만은 혹독한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스님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작업장 선택을 제한당하고 퇴직금을 출국하고 수령하게 하는 등 차별을 법제화한 현실만 보더라도 한국이 보편적 인권국가로서 성숙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일갈했다.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폐업하거나 해고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열악한 조건에 있더라도 한 사용자와만 일해야 한다.



지난 8월 고용허가제 폐지 요구도 분기총회 통해 정부정책 및 제도 평가 "이주노동자 피해사태 적극 알릴 터"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월 3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100여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냉난방 설비는 물론 화장실조차 없는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며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산재·고용·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제엠네스티 조사관이 "한

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인신매매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회일 스님은 "제도 부실이 극에 달했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 영역에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들을 들여와 일을 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은 인권유린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껏 종교계는 종단별 이주민 센터와 인권협의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4대총단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이주노동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 8월에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일 스님은 앞으로 이주·인권 협의회와 활동 계획에 대해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허울뿐인 모임으로 전락시키지 말자는 것이 공의"라며 "이주노동자의 피해사태 등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어나가며 정부정책 평가 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종차별이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정부에 명확한 기준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국내외적으로 발을 넓혀나간다는 계획도 내놨다. 배현진 기자

“고통을 삶의 비료로 받아들일길”

아남 툽텐, 12월 13일 동국대 법문

미국에서 활동중인 티베트 명상 수행자 아남 툽텐(Anam Thubten·사진) 린포체가 12월 13일 동국대 국제선전 대각전에서 '조건없는 행복을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청중 50여 명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 뒤 "마치 이 세계가 하나의 정신병원 같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오염됐고 서로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 전쟁은 국가간에도 일어나지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현재를 진단했다.
이어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화나 질투, 자책감 등이 올라올 때마다 불순하고 물리쳐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가 갖 태어난 아이를 다루듯 순수한 사랑으로 감싸안으라"고 조언했다.
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신을 그 감정과 동일화시키지 말라고도 했다. 대신 "하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며 "흰 구름,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수 있지만 광대한 하늘은 모든 모양과 색이 일어나도록 허용한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자신이 심하게 아팠던 경험을 언급하며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아프기전에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때도 있었지만 아파보고 나니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즉각 이해되기 시작했다"며 "그 후로 고통이 환영이라는 말 대신 그것이 주는 어려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고통은 아파하는 이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스승이었다"고 말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동국대 대중수련과 한산사 집중수련차 방문했으며 이번 한국방문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티베트에서 태어나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참다운 본성의 깨달음을 통해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도록 돕는 수행공동체인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해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며 수행지도도를 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동산, 제4대 이종현 이사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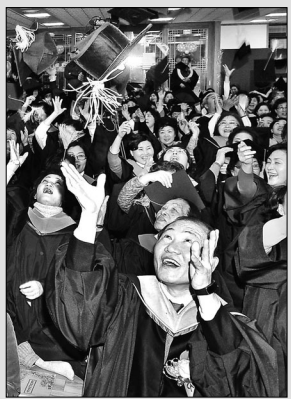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은 12월 13일 동산반야회관에서 이종현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제4대 이사장이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종현 신임 이사장(사진)은 "초대법주 무진장 대종사 스님과 창립자 김재일 초대 이사장을 재조명해 동산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1인 1도반 추천운동, 청년불자클럽육성, 가족법회 등으로 동산 발전을 꾀할 것"이라며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이취임법회에는 안동일 전 이사장을 비롯한 동산불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장 인경 스님, 진관 스님, 만춘 스님, 법연 스님, 홍윤식 박사, 김형준 교수, 이수광 자연보호독도중앙연맹 총재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공부하는 불자들의 꿈, 현지사서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14일 졸업식... 555명 배출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은 12월 14일 현지사 부산분원 대적광전에서 5기 졸업생 555명과 신도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영산불교대학이 있는 대전 현지사는 총 6층으로 불교대학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사 제2본산인 제주분원에도 제주불교대학이 부설되어 있다. 이날 자리에는 영산불교대학 5기 졸업생을 비롯해 제주불교대학 2기 졸업생이 졸업식에 참여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광명만덕, 자재만현 스님이 졸업식 전 부처님 전에 특별공양을 올렸다. 이어 열린 졸업식에서 자재만현 스님은 "부처님께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구족하시고 연화장세계에 여여히 계신다. 진정 불법을 믿는다면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말라"며 불자들이 신심을 갖기를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 모두가 구업을 많이 짓고 있다"며 "이타행으로 모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문에 이어 졸업식에서는 영산불교대학 학생 10개팀이 참가한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다. 한편,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은 매월 격주로 주말에 두 번 수업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영산불교대학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고 있다.

“보살행 펼치는 지도자 양성에 최선”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제5대 회장 박수관 취임

"불교 지도자 모임의 역할을 다지고 사회에 답을 제시하는 포럼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12월 18일 창립 제8주년 기념 및 회장 이·취임법회에서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하 지도자 포럼·사진) 제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수관 회장은 이와 같이 포부를 밝혔다.
일찍이 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수관 회장은 "세월의 연륜에 따른 지혜로 흠여졌던 회원들을 아우르는데 주력하겠다. 창립 당시의 모임 취지인 불교지도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도자 포럼의 결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박수관 회장은 정기법회와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들었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지금까지 매달 삼광사, 범어사 등 지역 사찰에서 법회와 함께 사랑의 이불나누기 봉사활동 등을 해왔다.
"지도자포럼 구성원들은 그 이름대로 학문, 문화, 재계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이 사회 곳곳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의 역할을 다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문을 수시로 듣고 스님들의 깨어있음을 거울삼아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박수관 회장은 "지도자의 역할은 사회 환원"이라며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매달 진행하는 등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창립된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각계 불교지도자 육성 및 불교문화 창달에 관계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하성미 기자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육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육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가지계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서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초발심자경문에서 대방광불화엄경까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인명논리로 바라본 나란다식 경율론 삼장교육

□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 교육대상 : 모든 종단의 비구, 비구니 스님을 포함한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강 사 진 : 학회장 스님과 학회 소속 지도교수 특강강사

□ 교육과정 : • 전 문 과 정 2년
• 연 구 과 정 4년
• 교 수 사 과 정 7년

□ 개 강 : 2015년 3월 7일 개강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 등 록 금 : 년 100만원

입학문의 : 서울승가대학 교학과 / 02)414-1222